

광주U대회, 국민에 희망·감동 선물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 보여준 고품격 개최식
경기장·문화축제에 시민들 뜨거운 참여 열기
메르스 차단·안전 대회 운영 ... 성공 보인다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광주 U대회)가 개막 초반부터 '성공 예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문화 품격'을 응집해낸 고품격 개최식과 시민의 뜨거운 참여 열기, 메르스 차단 등 완벽한 대회 운영이 맞물리면서 성공 기대감이 크다.

애초 북한의 불참, 메르스 확산 등으로 인해 흥행부진이 우려됐지만 이같은 성공 요소가 뒷받침되면서 입장권 매진 릴레이를 기록하는 등 대회 출발이 상큼하다.

특히 광주를 방문한 국내외 귀빈들의 극찬이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과 광주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메르스 확산과 여야 정쟁 등으로 침체한 국민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희망을 선사했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개막 3일째인 5일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북한의 대회 포기과 메르스 사태 등으로 흥행이 반감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깨고 이날 현재 농구·배드민턴·수구(11~12일)와 리듬체조(12일), 양궁(7~8일), 탁구(12일), 태권도(10~13일) 등의 입장권이 매진됐다.

앞서 지난 3일 광주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개최식도 4만3000석이 꽂혔으며, 화려하고 높은 품격으로 치러진 개최식에 대한 찬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된 개최식 시청률도 6.6%(닐슨코리아 집계)를 기록, 애초 예상했던 2%대를 3배나 뛰어 넘었다.

이날 개최식에 참석한 정부 주요 인사들

도 개최식 등 대회 준비에 크게 만족하며, 운장현 광주시장에게 "메르스로 침체한 국가의 위상을 세워줘서 고맙다"고 감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당 내분 등으로 고심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개최식에서는 모처럼 활짝 웃는 등 광주의 U대회 준비에 크게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광주 U대회에 출전한 각국 선수단 대표와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외교사절 및 주요 인사들도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원만한 시설 및 대회 운영 등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4일 광주를 찾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광주시민의 환영 열기와 환대에 감사를 표했으며, 같은 날 에인절 오도너휴 아일랜드 대사는 선수촌에서 자국 선수단을 격려한 뒤 "쾌적한 광주의 도시환경과 대회시설 등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말했다.

양리 중국 선수단장과 빈센트 프랑스 선수단장, 지오바니 이탈리아 선수단장 등 각국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 대표들도 한결같이 광주시민의 친근감 있는 환대와 깨끗한 도시 분위기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양리 중국 선수단장은 "현재까지는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운장현 광주 U대회 조직위원장(광주시장)은 "전 세계에서 예술과 문화의 도시 광주를 찾으신 손님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lucky@



"금메달 약속 지켰어요" 여자 유도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이 5일 오후 광주 서구 염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여자 -70kg급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한국 응원단에 손을 들어 담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어 2연패다. 기대를 모았던 왕기춘(27·용인대)과 박지윤(23·용인대)은 결승에서 아쉽게 패해 은메달에 그쳤다.

김나미(21·독도스포츠타운)의 은메달로 한국에 첫 메달을 선물한 다이빙에서는 손태량(28·국민체육진흥공단)·김진용(26·강원도청)이 남자 3m 싱크로나이즈드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381.42점을 따내 동메달을 추가했다. 사격의 박성현(21·한국체대)은 김현준(23·IBK기업은행)·이재원(22·한국체대)과 함께 남자 10m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내 이어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 광주U대회 메달 순위 (7월 5일 20시 현재)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6	3	2
2	대한민국	4	5	5
3	일본	3	3	4
4	미국	3	0	2
5	러시아	2	7	5
6	이탈리아	2	2	2
7	프랑스	2	1	3
8	브라질	1	0	1
8	이란	1	0	1
10	우크라이나	1	0	0

알립니다

여름휴가는 대한민국으로

관광 내수 살리기...2015 대한민국 명품 관광대전

"올 여름 휴가는 대한민국으로!" 전국을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지역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하나 둘 끊기고 있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다시 살펴보고, 메르스 여파로 주저앉은 지역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각 시·도의 유력 언론사 9곳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TV조선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서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대한민국 명품 관광대전'을 개최합니다.

10개 언론사와 함께 국내 관광 관련 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숙박업계 등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관광대전에서는 전국 팔도의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을거리는 물론, 지역별 명품 특산물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10개 언론사는 전국 관광명소를 알리는 기획 보도를 통해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흥에 힘을 보탬 예정입니다. 올 여름, 알찬 휴가를 고민 중인 모든 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이번 관광대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15 대한민국 명품 관광대전 (2015 Korea Premium Tourism Exhibition)
- 기간 : 2015년 7월 9일(토) ~ 11일(토) 3일간
- 장소 :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앞길 2관
- 주최 : TV조선(주)조선방송 / 한국지방신문협회(광주일보, 경인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 주관 : (주)코트파
- 문의 : (062)220-0541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光州日報社

문화전당 운영 인력 축소

직제 개편안 차관회의 기습 상정 통과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인력 축소를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직제 개편안이 지난 2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특히, 광주 민심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차관회의를 통과한 문화전당 직제안을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과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대통령의 궤변 발언이 나온 지 7일 만에 조직 개편안이 차관 회의를 통과했다"며 "초대행 국책사업을 8명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50명의 문화전당 인력으로 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무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6면으로 계속 /임동욱기자 tuim@

김성연 금빛 업어치기

<광주도시철도공사>

한국, 유도서 금 3·광주출신 송중훈 펜싱 금 ... 종합 2위

한국 유도의 김성연과 광동한이 금메달 2개를 추가했다. 전남 유도의 조구한이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겼고, 광주 출신의 송중훈은 펜싱에서 금메달을 보냈다.

이로써 대회 둘째날인 5일 현재 한국은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를 획득, 중국(금 6, 은 3, 동 2개)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김성연(24·광주도시철도공사)은 5일 광주 염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광주U대회 유도 여자 70kg급 결승에서 일본의 오사나 카즈키를 유효승으로 꺾고 시상대 맨꼭대기에 올랐다. 김성연에 이어 출전한 광동한(23·용인대)은 90kg급 결승에서 러시아의 쿠센 칼무르자예브를 한판승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카잔 대회에 이

예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5년 7월호

6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유난히 지치는 올여름
섬으로 갈까?

번잡한 일상 접고, 풀리는 다만의 섬으로
금오도 비렁길, 질푸른 숨소리를 듣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산토리니 & 하와이

기획
거침 없고, 깨알 같은
"팟캐스트가 좋다"

팟캐스트 6천개 시대의 의미
인기 팟캐스트 '이이제이'를 찾아서

도시재생, 문화에게 물어봐·국내외 현장을 가다
"수영장이 갤러리로"
프랑스 루베 라 피신스 미술관
아시아 스토리 로드-밀라노(아)·
몽구스족의 전통 주거, 롱하우스
중화 기개 살아있는 정남진
문학의 숲, 울의 축제

장흥
"수영장이 갤러리로"
프랑스 루베 라 피신스 미술관
아시아 스토리 로드-밀라노(아)·
몽구스족의 전통 주거, 롱하우스
중화 기개 살아있는 정남진
문학의 숲, 울의 축제

예향 초대석
'발레 한류' 이끈 발레 대모 김선희 교수
"호남예술제가 발레인생의 시작점이었죠"

남도의 정인들께
온 마음 바쳐 일편심·새기는
장도장 박종군

사람이 브랜드다
서해 유성룡과 경북 안동
'징비'의 성찰이 절실하구나

정윤수의 스포츠인사이드
성적 소수자 운동 앞장 서온
다이빙의 영웅 그레그 루가니스

화가의 작업실
"존재와 길" 화두 삼은
'다원적개념 미술가'
이매리

내 손으로 만드는
건강한 향초

예향이 만난 이 사람
'필소곳' 기아아구의 외인 해결사 브렛 필

문화 현장
매교, 광산, 시정에 스며든 문화향기
강원도 문화재생 공간들

죽은 푸드
휴가지에서 즐기는
바캉스 요리

광주U대회 특집
4일(토) 호외 8면
발행했습니다

광주U대회 관련기사
2·3·4·5·6·8·10면